

새 출발



임석민 형제(전주 중앙 와드)

좋은 아침이다. 일상의 상념을 버리고 사색에 잠기고픈 조용한 아침이다. 겨우 겨우 벽의 못에 의지하여 남은 한 장의 마지막 달력을 보며 지나온 한해를 추스려 본다.

평소 좌우명처럼 간직하고 다니던 니파이삼서 14장 21절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한해의 목표로 삼고 뛰어온 지난 일 년. 백마디의 말보다는 하나의 행위를 영위하고자 소망했던 지난 일 년. 돌이켜보면 내 주위엔 나보다 더욱 밝은 빛을 발하는 선한 이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한해인 듯 싶다.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묵묵히 봉사의 길을 택했던 청남 청년들, 팔순의 고령의 나이에도 가장 정열적으로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어주신 최삼동 감독님, 모든 시간적 경제적 희생과 모범을 아끼시지 않으셨던 장로 정원희, 상호부조회 형제 자매님들. 불철주야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들 등을 통해, 어쩌면 나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가르침이 심장안으로 끊임없이 밀려 들어왔다.

축복이었다. “거듭남”의 의미를 다시금 상고시켜 준 일련의

나날이었다. 감사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기엔 나의 지력(智力)이 너무나도 미미하다.

며칠 뒤면 새해의 동이 틀 것이다. 이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때이다. 작심 삼일의 숙어가 내게도 해당이 된다면 난 삼 일에 한 번씩 작심(作心)을 할 것이다.

더욱 욕심을 부려 본다. 매일 메시지를 침례탕에 잠겼다 떠오르는 마음으로, 거듭남의 각오로 일상의 생활을 일구고 싶다. 우리는 순간이 아닌 영원의 견지에서 함께함을 공감한다. 그러므로 우리 -시온의 자녀들-에겐 끝이란 무의미한 열매이다. 다행히도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태어남 뿐이다.

겨울 날씨답지 않게 하늘이 고즈넉하고 청아하다. 2미터도 안되는 내겐 너무 높은 하늘을 올려 보며 당찬 독백을 뇌여 본다.

“아버지시여! 하찮은 세계도 한층의 기대를 야기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들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라도 출발선에서의 아버지의 총성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

귀환 선교사 간증

템플 스퀘어에서의 경험

정현경 자매(화양 와드)

2년 전 이맘때 쯤 저는, 오랫동안 준비했고 기다렸던 선교사 부름장을 받고 매우 기뻐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부름장을 읽는 순간 저는 아주 기뻐던 반면 뭔가 사무착오가 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템플스퀘어 방문자 센터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솔트레이크 성전을 보는 것, 솔트레이크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특히 프로보 MTC에 가보고 싶었던 것은



제가 가진 하나의 소망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보 MTC에서의 시간들은 정말 훌륭했고, 기쁨과 감사에 목이 메어 찬송가를 계속 부를 수 없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MTC의 하루 일정은 힘들고 빡빡했지만 유익한 시간이었고, 1월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어둠을 헤치고 새벽을 여는 많은 선교사들의 힘찬 발걸음 소리는 지금도 귓가를 스치는 듯합니다.

약 80명의 자매 선교사들과 20쌍이 넘는 부부 선교사들이 봉사하는 템플스퀘어에는 1년에 5백만 명이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옵니다. 템플스퀘어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있지만 주로 방문자들에게 템플스퀘어 안에 있는 역사적인 건물과 교회 개척자들의 희생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물문경에 대한 설명과 우리의 짧은 간증을 전하는 45분의 Tour를 합니다.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하면 방문자 카드에 있는 조그만 네모칸 안에 체크를 하게 하고 이 카드를 방문자들이 사는 지역의 선교사들에게 보내면 이들은 방문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이 카드를 Referral이라 부르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 많이 노력했던 순간들이 기억납니다.

제가 처음 Tour를 주었던 날 동반자와 3개의 Referral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Tour가 끝나고 방문자들에게 일일히 인사한 후 이들이 남긴 카드를 보는 가운데 우리가 원했던 3개의 Referral을 받은 것을 확인한 순간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님은 친구(회원)가 암으로 죽기 전에 Salt Lake City에 있는

제3회 국제 예술 경연 대회 -복음대로 생활함-

자격 및 기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

말일성도 예술가들에게 오늘날 복음대로 생활하는 교회 회원들의 모습을 묘사해 보도록 격려하는 데 본 경연 대회의 목적이 있으며 작품은 복음과 연관된 주제를 가지고 오늘날 복음대로 생활하는 말일성도의 생활상을 그린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문화 및 미적인 전통을 살려 종교적인 주제를 가진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어떤 재료의 작품이든 응모 가능

응모 작품은 1인 1작품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1991년 1월 이후에 완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작품은 회화, 판화, 사진, 조각, 직물, 도자기, 자수 및 기타 미술품이나 공예품 어느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최종 심사에 오를 작품은 액자에 넣거나 조립하거나 전시회 출품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작품은 최장 치수가 213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회 슬라이드 심사

응모 양식과 함께 작품을 찍은 슬라이드를 2장(사진의 경우는 치수가 20cm×25cm까지)까지 제출합니다. 각 슬라이드의 앞면에는 성명, 제목, 부문을 적고 “맨위” 부분을 화살표로 표시하거나 글자를 써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와 인쇄물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작품을 공개 및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한은 교회 역사 및 예술 박물관이 갖습니다.

원작 최종 심사

최종 심사에 오른 작품에 대한 통보는 1993년 12월 27일 이후에 받게 될 것입니다. 최종 심사에 오른 작품은 1994년 2월 17일까지 교회 역사 예술 박물관에 도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품은 전시회가 끝나는 1994년 9월 5일까지는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상

6명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단이 전시회에 출품할 작품을 엄선하고 상금을 위한 기금에서 우수한 작품에 대해 상금을 주고 작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응모 작품에 대한 심사는 자격을 갖춘 심사 위원 3명을 1조로 하여 2개 심사 위원단이 여러 부문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응모 작품은 (1) 주제의 성공적인 처리 여부, (2) 미적인 세련도 및 기술적인 완성도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상”-20명까지, 1인당 500달러, (2) “방문자 선정상”-3명, 1인당 500달러, (3) “구매상”-수에 관계없음, 작품 가치에 따라 결정. “우수상”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작품에 부여합니다. 구매한 작품은 교회 역사 및 예술 박물관에서 소장하게 됩니다.

1994년 제3회 국제 예술 경연 대회 “복음대로 생활함” 응모 양식

출품자 성명: _____

주소: _____

와드/지부: _____

스테이크/지방부: _____

작품 제목: _____

재료: _____

완성 년도: _____ 규격(센티미터): _____ 길이 _____ 폭 _____ 규격

부분: 유화, 데생, 수채화, 판화, 혼합 매체, 사진,
 조각, 목각, 스테인드 글라스, 도기, 도자기,
 누비, 자수, 직물, 바구니 세공, 가죽 가공,
 보석 세공, 금속 가공, 기타:

작품 설명(작품에 붙일 설명문을 위해): _____

판매 여부: 예, 아니오

판매가: _____ 달러(미) 또는 보험가: _____ 달러(미)

1993년 10월 31일까지 작품의 슬라이드나 사진과 함께 응모 양식을 지역 배부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과에서는 1993년 11월 17일까지 교회 역사 및 예술 박물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할 것입니다. 심사 위원단에서는 1993년 12월 27일 이후에 1차 심사 합격자를 통보해 드리게 됩니다. 통지가 없으면 원작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Museum of Church History and Art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45 North West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템플스퀘어에 방문해 보라는 권유에 따라 저의 Tour에 참석했고 얼마 후에 침례 받을 거란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북쪽 방문자 센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상 앞에 앉아 있던 2명의 스페인계 사람에게 Referral을 받으려 시도해 보았지만 그들은 영어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있던 미국인 여자 2명 중 한 명이 짧은 실력의 스페인어나 나의 말을 통역하던 중 오히려 그분이 더 많은 관심을 보여 Referral을 받았던 일이 생각납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도 주님은 많은 것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템플스퀘어의 문을 닫기 직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름 시즌에는 많은 한국인들을 위해 바쁘게 보냈고 그래서 field에서의 시간은 3개월 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부장님의 특별한 허락으로 한국인이 있는 곳엔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91. 1. 16~92. 7. 29. 이 짧은 1년 반의 시간은 지났지만 아주 값진 시간이었고, 주님은 특별한 이유로 저를 그곳에 보내셨음을 압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의 많은 숫자의 Referral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인내, 태도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행동, 생각, 태도에 최선을 다했고 또 주님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주님은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심을 압니다.

믿음, 순종, 기도 등의 중요한 복음 원리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며 좋은 경전 구절(니파이일서 8:15, 앨마서 38:

2~3)들을 나누셨던 하버스톤 부장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지식으로서만이 아닌 선교사로서의 체험을 통해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물론경이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침례받은 후 지금까지 12년 동안 결코 쉽게 신앙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라서기 보다 굳이 말하자면, 매일 주님의 힘으로 인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훌륭한 장소에서 봉사했었던 커다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부부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싶은 소망을 가져 봅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사진설명 : 선교사들과 함께 한 정옥경 자매(가운데)

선교사의 어머니

김영민 형제

부산 서 스테이크 대신 와드에는 부산 선교부의 모든 장로, 자매 선교사들이 입을 모아 「어머니」라고 부르는 자매님이 한 분 계시다. 그분의 성함은 「정옥경 자매」.

자녀들은 모두 장성하여 분가하였고 남편마저 사별하여 홀로 지내시는 그분 댁에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늘 곁에 두고 읽으시는 성도의 빛과 경전, 자녀들의 사진과 선교사들의 사진이다. 얼른 보기도 느낄 만큼 그분은 선교사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다.

거의 매달 선교사 대회가 돌아오면, 선교사들이 점심값을 거두어 정 자매님께 드리고 자매님은

그 돈으로 그날 선교사들의 점심을 지어 주시는데 때로는 진주, 때로는 마산 할것없이 어디나 가서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다. 그뿐이라, 정해진 돈으로 만드는 반찬에 더하여 자매님의 넉넉치 않은 주머니를 아낌없이 털어 백 몇십 명이 넘는 선교사들의 한끼 점심을 풍요롭게 하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으시다.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날 무렵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우연히 정 자매님 댁에서 하룻밤을 유한 적이 있어서 그분이 얼마나 검소하게 생활하시는지 눈을 본 나로서는 그분의 삶의 방법이야말로 내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아닐까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말일의 세상에 사는 우리는 자칫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비교하여 우리의 행동 기준을 잘못잡고 있는 수가 흔히 있다고 보는데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과 길은 바로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

세무사 고시 합격



이현주 형제

정주 지부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현주 형제가 이번 92년도 재무부에서 시행한 제 29회 세무사 고시에 합격(92년 10월 31일자 일간지 신문 발표)하였다.

이현주 형제는 전북대학교 상대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였으며, 동 대학원 회계학 과정을 이수하고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첫번째 수원 스테이크 대회

그는 대학 3년 시절에 개종한 이래 이 교회의 참됨을 깨닫고, 이 교회에 끝까지 남아 주님의 사업에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자신의 전공을 살리기 위하여 세무사 시험을 결심했노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원을 졸업하던 해인 89년 11월에 서울로 올라가 고시원에 머무르며, 자신의 노력과 함께 신앙 가운데에서 이를 이루기 위하여 1년은 영등포 지부에서 그 이후 1년 6개월은 청운 와드에 참석하면서 안식일 모임을 한번도 거른 적이 없었으며 자주 성전을 방문하였고 1차 시험 준비를 위해 박병규 성전장남께, 2차 시험 준비를 위해 김용일 청운 와드 감독님께 축복 안수를 받고 시험에 임하였다고 한다.

“저는 제게 주어진 축복문의 내용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한 과정으로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저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이 세무사 시험 합격을 영적인 가운데 결심하고 신앙과 노력으로 이루었다는 것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내내 저를 믿고 지지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 준 아내와 이 영광을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이 형제는 진지하게 말했다.

이현주 형제는 대제사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부 서기·세미나리 교사·지부장단·지부장·스테이크 고등평의원으로 봉사한 바 있으며, 지금은 정주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역시 귀한 선교사인 오혜정 자매와 슬하에 2남(정현, 진현)을 두고 있다. □

매년 스테이크 대회가 되면 인천/서울 서 스테이크에 참석해야 했던 수원 지역의 성도들의 분리 조직 이후 첫번째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10월 24~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용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수원 스테이크 센터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토요 모임에 첫 연사로 나현수 형제가 청소년 대회를 통해서 변화된 삶에 대하여 간증했으며, 스테이크 부장단 2보좌인 허충석 형제는 신권의 권능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 정결케 되며,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스테이크 부장단 1보좌인 이영희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이며, 표적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며, 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용환 스테이크장은 신권 지도자는 축복을 관할하는 청지기이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항상 “신앙, 희망, 자비... 또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자(교리와 성약 4:5)”가 되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하도록 권고했다.

1. 가정내에서 대화를 나누라.
2. 상대방에 대하여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
3. 장점(강점)을 보라.
4. 성전을 방문하여 영원한 기쁨을 찾으라.

또는 일요 모임에서 이용환 부장은



먼저 회원들이 '너희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첫째, 주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고, 둘째, 주님께 봉사는 온마음으로 행해야 하며, 셋째, 성전에 가기 위해서 생활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한 형제님이 직장에서의 모범적인 생활로 성전에 방문할 수 있었다는 예를 통해 개인적으로 육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며 성전을 규칙적으로 방문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권고하였다.

이 대회에는 3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김진만(신풍), 이상국(울진), 김현수(울진) 형제가 대신권을 받았다. □

(기사 제공: 이상호 형제)

역원 변경

-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감독: 최종찬 형제 (전임자: 김현주 형제)
화양 와드 감독: 김과영 형제 (전임자: 박광식 형제)
-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2와드 감독: 김인구 형제 (전임자: 이재두 형제)
- 강서 스테이크
영등포 지부 지부장: 장동민 형제 (전임자: 김중용 형제)
- 영동 스테이크
영동 와드 감독: 박용길 형제

(전임자: 이수환 형제)

- 부산 스테이크
방어진 와드 감독: 서희교 형제 (전임자: 박봉구 형제)
- 양산 지부 지부장: 김성열 형제 (전임자 김주훈 형제)

조직 변경

- 서울 스테이크의 금호지부가 성동 와드로 승격 및 명칭 변경됨. (초대 감독: 김용한 형제)
- 서울 서 선교부 산하 이천 지부가 영동 스테이크로 편입됨.

선교사 훈련원 제146기

(1992. 11. 16~1992. 11. 27)

〈성명〉 〈출신지〉 〈선교부〉

김우수 장로	서울 동 S/도봉 W	부산 선교부
박수진 장로	원주 S/태백 B	대전 선교부
문미경 자매	서울 동 S/미아 W	대전 선교부
이은숙 자매	청주 S/상당 W	부산 선교부
조은영 자매	영동 S/영동 W	대전 선교부
이재숙 자매	서울 서 S/신림 W	부산 선교부
신귀란 자매	인천 S/간석 B	부산 선교부



뒷줄 왼쪽부터: 조은영, 신귀란, 이재숙, 이은숙, 문미경
앞줄 왼쪽부터: 박수진, 김우수